

‘제1회 전국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 통해 전문인력 양성

특허청은 사회진출을 눈앞에 둔 대학생들에게 발명과 특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대전 국제특허연수부에서 ‘제1회 전국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 제1회 전국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와함께 치러진 ‘전국 대학발명동아리 연합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대학 발명동아리 회장단.

특허청(청장 김광림)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박광태)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대학의 발명동아리 및 기술개발 연구동아리 회원 30개 팀이 참가하여 각기 발명의 창출과정과 특허정보의 분석 및 활용과정, 발명의 기술성 및 경제성 등을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에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영예의 대상(산업자원부장관상)은 ‘물리적 접촉제어

및 타이머 부착 랜카드(Lan Card)’를 개발한 김천대학 세종대왕팀이 수상하였으며, 금상인 특허청장상은 성균관대학교 성균발명연구회와 숭실대학교 바람개비팀이 각각 수상하였고, 은상 3팀, 동상 5팀 등 총 11개팀이 수상했다. 한편, 이번 대회개최와 함께 ‘전국 대학발명동아리 연합회’가 13일 저녁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하였다. 대학생들의 발명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발명활동 촉진을 위한 커뮤니티 채널 구축을 목적으로 창립된 전국 대학발명동아리 연합회는 전국 총 28개 대학 발명동아리 회장단이 참가했는데, 초대 회장에는 아주대학교 정문호(인문학부 2년)군이 선출되었다. 발명동아리경진대회를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아 내년 5월과 11월에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정문호 회장은 “경진대회에 입상한 발명동아리의 발명품이 기술이전이나 벤처창업 등을 통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으며, 향후 대학발명동아리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발명 아이디어의 공유 및 발명 아이템 공동개발 등 발명촉진 커뮤니티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우리 나라가 세계 일류의 기술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산실인 대학의 지식재산활동의 촉진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미 대학교수의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의 확대 및 대학 특허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관계법령을 개정하였으며 향후 대학 지식재산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학당국과 교수들에 대한 지식재산활동의 지원은 물론 대학생들의 발명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숭실대학교 배명진 교수팀, 친절 전화기 발명

불친절하거나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힘든 전화 목소리를 부드럽고 또박또박한 음성으로 바꾸어 들려주는 기술이 개발됐다.

배명진 숭실대학교 음성통신연구실 교수팀은 일명 ‘친절 전화기(gentle telephone)’를 발명, 전화기 건너편의 목소리가 불쾌하고 너무 빠를 때 ‘친절 버튼’을 누르면 친절한 목소리로 전화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지난달 8일 밝혔다.

친절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2배 정도 천천히, 친절하게 들리며 한번 더 누르면 정상 속도로 복귀된다.

기술을 개발한 배교수는 “감각기능이 노화되는 노인들에게 편리하고, 상대방의 급하고 일방적인 목소리 때문에 자칫 불쾌한 감정이 유발되기 쉬운 분위기를 순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기술개발 의의를 설명했다.

전주 ‘종이박물관’ 관광명소로 자리잡다

국내 유일의 종이 박물관인 전북 전주시 팬 아시아 종이박물관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7일 박물관측에 따르면 지난 97년 10월 개관 이후 종이와 관련된 것을 보려는 관람객들이 줄을 이으면서 이날까지 관람객 수는 46만1,000여명으로 하루 평균 300여명이 다녀갔다.

팬 아시아 페이퍼 코리아(옛 한솔제지)는 5년 전 회사 내에 상설전시실 2곳과 기획전시실 1곳, 한지재현관 등을 갖춘 500평 규모의 종이박물관을 마련해 종이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꾸몄다.

제1전시실에는 중국의 갑골문자와 죽간, 이집트의 파피루스, 지중해의 양피지, 메소포타미아의 패트라 등 세계 각 지역에서 손으로 직접 만든 종이의 실물을 보여주고 있다. 또 2000여년 전 중국에서 발명된 종이와 세계 각 지역으로 전파된 과정과 원료 및 제지기술의 발달사를 조명하고 종이그릇 등 우리 사회의 예술, 생활 등과 관련된 종이유물도 전시되어 있다.

제2 전시실은 현대에 접어들면서 점점 다양해지는 종이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종이 제작과정과 세계 각국에서 이색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종이 쓰임새가 소개되고 또 스스로 빛을 내는 ‘축광지’ 등을 통해 종이와 정보의 기록과 저장, 전달이라는 고전적 기능을 뛰어넘어 첨단 산업소재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지 재현관은 한지의 원료인 다펀 나무 껍질을 삶고 뿔아 물기를 제거하고 말리는 전통한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재현하는 곳으로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전통한지를 직접 떠볼 수 있다.

기획전시실은 ‘다종이 인형전’을 비롯한 종이 관련 전시회를 여는 공간으로 현재 ‘다종이 인형으로 보는 우리 풍속전’이 열리고 있어 다종이 인형들의 소박하고 친진난만한 표현들에 흠뻑 취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Quality guaranteed

은품이머리는 한국표준협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국내 우수 제품 중에서 최고의 품질과 제품성이 인정되는 오직 은품이머리만 부여되는 인증제도입니다.

카보나 Charcoal(숯)+carbon(탄소)+나(我)의 합성어로 숯을 배운다. 즉, 탄소의 결정체인 “숯에 있는 수많은 효능이 사용하는 고객과 한몫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숯의 신비- Carbona 카보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무턱대고 굽지마십시오!
 카보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생되므로 건강에 좋습니다
 카보나는, 연기가 없고 냄새를 제거하므로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카보나는, 고기맛을 좋게하고 사용후 불판을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여과작용 · 탈취작용 · 습도조절작용 · 해독작용 · 정화작용 ·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혈액순환

카보나는 천연 참숯을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www.isdigital.co.kr

ISDigital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9-8호
 TEL.(02)567-8080 FAX.(02)539-4600